"신재생에너지·대체연료 개발 기여하고 싶어요"

2021 으뜸인재 〈3〉광전기화학 전공 김지현씨

학부전공 중 연구실 생활이 전환점…실험·10차례 학회 참여 도움
학술회 우수발표상 등 수상 다수…박사학위 취득 위해 유학 준비 중

"뒤늦게 공부가 너무 재밌는거에요. 늦공부가 터진거죠. 암기 없이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과학 과목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목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광전기화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지현(여·28)씨가 '제2기 전남도 도비유학생'으로 선정됐다. 그녀는 독일에서 전기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생성 등의 분야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중이다.

"자율전공 진학을 위해 목포대 입학해 학부전공으로 화학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무기화학 전공 남기민 교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대학 4학년부터 교수님의 추천으로 연구실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남 교수의 추천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들보다 일찍 연구실 생활을 시작한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커리큘럼대로 진행됐던 이론 수업보다 직접 논문을 찾고 실험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실력도 배가됐다.

"여러 연구를 진행하다가 나노촉매 실험에서 한계를 느꼈어요. 실험 조건과 환경 탓인지 실험마다 매번 다른 결과가 도출되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 교수님이 실패한 실험, 잘못된 연구는 없다고 조언해주셨고, 그에 따라 연구노트에 꼼꼼히 필기하며 실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여러 조건을 함께 연구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났습니다."

남 교수의 연구실에 석사과정을 시작한 그녀는 갑자기 남 교수가 부산대로 이직하면서 다시 석사로 재입학했다. 졸업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고, 학비와 거주 비용 등에 부담을 느꼈지만 남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8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석사 학위를 받은 지난 2020년 8월까지 10여 차례 학회에 참석하며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얻었고, 연구최종보고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아무래도 남 교수님 밑에서 발표 경험도 쌓고 광전기 화학과 관련 세계적인 추세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광전기 화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 각국의 교수님들이 영어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고요. 또 후배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석사 졸업 후에는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6개월 동안 화학과정 조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중학생 4명과 광촉매를 합성, 태양광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공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김씨. 특히 기초과학 분야 중 가장 어렵다는 화학을 공부하려는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도 느꼈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서 논문을 작성할 때 보충 자료가 되기도 했다. '초음파 합성법 및 광화학적 분석', '촉매의 결정구조 변화 및 성장 방향 연구 및 광전기화학적 새로운 특성 발견 연구' 등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대한화학회 주관 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부산대 화학과 주관 제2회 Chemistry Fair 우수발표상 수상 등 다수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것도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다.

"아무래도 가장 고마운 분은 남기민 교수님입니다. 남 교수님으로 인해 화학을 제 길로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죠. 저를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연료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민과 전남도의 지원을 받게 된 만큼 유학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아주병원, 아동 결연 인재양성지원 후원 약정

의료법인 아주의료재단 광주아주병원(이사장 김수홍, 대표원장 김형민)이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와 인재양성 지원사업 후원약정을 맺었다.

광주아주병원은 아동 1명과 결연을 맺고 매월 3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무용을 접하고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무용가를 꿈꾸고 있지만 가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민 대표원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꿈 꿀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오늘 약정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아동의 꿈과 재능이 다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99세 청각장애 아버지 귀가 되어준 김은옥씨 효자상 수상

2015년 광주로 내려와 아버지 모셔…지역 아동 돌보미 역할도

광주에 거주하는 김은옥〈왼쪽 두번째〉씨가 최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김영수)가 주관한 '제44회 효자효부상 시상식'에서 효자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아버지 김영후씨와 어머니 전정임씨 사이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김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2015년 이후로 아버지를 모셨으며, 2017년 어머니가 임종한 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90이 넘은 아버지를 누군가는 수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광주로 내려왔다"며 "아버지가 99세가 되도록 귀가 되어 드리고, 때론 친구가 되어 드렸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지역사회를 위해 하루 4시간씩 지역 아이들의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효자·효부상은 지난 1978년 제정돼 올해까지 772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17명으로, 전몰군경유족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신보, 채권회수 최우수 재단 선정 중기부 장관 표창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사진)은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2020년 채권회수 최우수 재단'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경기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무감면 정책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무자 중심의 감면제도 마련과 현장 중심의 온정적 회수활동이 채무자의 큰 호응으로 이어졌다고 신보 측은 자평했다.

상·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힘썼다. 전남신보 모든 영업점은 현장밀착형 회수활동으로 채무자와 신속한 면담을 추진하고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자발적 상환을 이끌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채권(특수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도 했다.

정양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나아가 채무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2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설계 알짜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뱅글스쿨(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특집다큐멘터리 골목예찬(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밥이 되어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00 라켓소년단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05 스포츠 매거진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코코몽2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두다다쿵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윙스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09:30 마샤와 노래해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글로벌 뉴스
12:10 아주 각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지식채널e
15:15 클래스 e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5:50 가만히 10분 멍TV
16:00 마샤와 곰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내 친구 몬덕이
17:00 EBS 뉴스
17:20 세미와 매직큐브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방과 후 듄듄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19:35 자이언트 펭TV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여름날의 꿈 -내 마음의 풍경, 마다가스카르〉
21:30 한국기행 〈달콤한 나의 도시 1부 그 여름, 수리산〉
21:50 EBS 창사특집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3:3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1일(음 5월 12일 庚子) ☎010-9790-8237

子 — 36년생 대단히 부담스러워 해왔을지라도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48년생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0년생 의외의 요인에 의한 차질이 보인다. 72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다. 84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96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63

丑 — 37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49년생 지난 일에 얽매인다면 동력이 약화되리라. 61년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지럽겠다. 73년생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85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97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50

寅 — 38년생 똑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50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62년생 파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74년생 기교가 수익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86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98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5, 64

卯 — 39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51년생 참는 것이 곧 덕이니라. 63년생 바라만 보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차분하게 대응하라. 75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알차다. 87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흉성도 사라지리라. 99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3, 93

辰 — 40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52년생 현태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니라. 64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76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88년생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00년생 이왕이면 다중적인 복합기능이 경제적이니라. 행운의 숫자 : 01, 52

巳 — 4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53년생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적응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77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9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01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56

午 — 42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54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66년생 조용히 암중모색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이다. 78년생 설득력있는 실행이 뒤따라 줘야 한다. 90년생 오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02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16, 51

未 — 43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55년생 정황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캘 일이다. 67년생 즉흥적이라면 다분히 오판의 소지가 있다. 79년생 정면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라. 91년생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03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행운의 숫자 : 14, 54

申 — 32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56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68년생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되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80년생 불완전하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92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0, 73

酉 — 33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45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57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 된다. 69년생 전도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81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93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44, 86

戌 — 34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 46년생 순간적인 착각에서 기인한 변화의 시도가 문제다. 58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70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2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94년생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행운의 숫자 : 26, 77

亥 — 35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겠다. 47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59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71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83년생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95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행운의 숫자 : 09, 59